스포티파이로 미리 떠나보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

11 개 구간의 풍경과 정서에 꼭 맞는 음악 따라 드라이브

총 16 개 지역 스위스 라디오 청취자들이 추천한 곡으로 구성된 1600km 플레이 리스트
5 개 알프스 고갯길, 22 개 호수, 12 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따라 음악이 흐르고
달리는 구간에 맞는 플레이 리스트 재생하고 큰 소리로 따라 불러
그 풍경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자신 발견할 수 있어
여정 그 자체가 목적인 아름다운 드라이브 여행
여행 이후 그 노래 들으면 자연스레 떠오를 스위스 풍경
그랜드 투어 스낵 박스까지 함께 하면 완벽한 언택트 여행
심지어 컨버터블 전기차로 플랙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라는 테마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오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스위스 전역을 달리며 5 개의 알프스 고갯길, 22 개의 호수, 12 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보다, 여유를 갖고 국도를 이용해 풍경 속을 달리며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행법이다.

더욱이 세계 최초로 전기 자동차 로드 트립도 선보였다. 약 300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스위스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 1600km 이상 펼쳐진 드라이브 코스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며 스위스 자연의 품속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각지의 호텔도 전기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중, 실제 그랜드 투어 여행자들에게 가장 환영 받는 아이템은 '스위스 그랜드 투어' 전용 플레이 리스트다. 최근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파티파이(Spotify)에서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할 수 있는데, 각 구간의 풍경과 정서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 구간별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었다. 달리는 구간에 맞는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그 풍경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스위스정부관광청과 스위스 그랜드 투어 협회, 총 16 개의 스위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라디오 청취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달릴 때 즐겨 듣는 노래를 추천하여 완성되었다. 총 11 개의 플레이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로 개성 넘치는 선곡이 빛을 발한다. 각 구간별 플레이 리스트는 40 곡에서 100 곡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최고의 드라이브 구간과 그 구간에 매칭되는 곡을 살펴보자.

1. 본 조비,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 취리히와 유럽 최대의 폭포를 따라가는 호숫길 드라이브

취리히(Zurich) – 샤프하우젠(Schaffhausen) - 슈타임 암 라인(Stein am Rhein)

이 루트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의 첫 번째 구간의 일부다. 스위스 최대의 도시, 취리히에서 출발해 옛 산업지구가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마을, 빈터투어(Winterthur)를 지나 북쪽을 향한다. 유럽 최고의 폭포가 있는 샤프하우젠(Schaffhausen)에 도착해 웅장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폭포까지 보트 여정을 즐겨 보아도 좋고, 폭포 건너편으로 향하는 하이킹을 해보아도 좋다. 폭포를 감상하며 우아한 정찬을 즐겨볼 수도 있다. 곧 드넓은 수평선이 펼쳐진 라인강 상류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곧 호숫가의 정겨운 마을,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ine)이 등장한다. 스위스와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독일 국경에 놓인 커다란 보덴제(Bodensee) 호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품은 호수로 꼽히는 서쪽편 호수, 운터제(Untersee)를 품고 있다.

***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
이 낭만적인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본 조비의 '잇츠 마이 라이프(It's My Life)',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캘리포니케이션(Californication)', 보스턴의 '모어 댄 어 필링(More Than a Feeling)', 빌리 조엘의 '위 디든 스타트 더 파이어(We Didn't Start the Fire)', 사라 코너의 '빈센트(Vincent)',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가 심금을 울린다.

2. 블론디와 티나 터너와 함께 넘실대는 알프스 3 대 고갯길

고타드 고개(St. Gotthard Pass) - 푸르카 고개(Furka Pass) - 그림젤 고개(Grimsel Pass)
구불구불한 산 고갯길이 이어져 운전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알프스 한복판 적막 속을 달리는 짜릿함도 느낄 수 있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의 하이라이트다. 세 고갯길이 이어지며 알프스산맥을 넘게 된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고타드 고개다.
이탈리아 남부의 이탈리아어권인 티치노(Ticino)주, 아이롤로(Airolo)에서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고갯길은 뱀처럼 굽이돌며 고타드(Gotthard)까지 오른다. 발 트레몰라(Val Tremola)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고타드 고개는 알프스 고갯길의 정수다. 조약돌로 만들어진 길을 달리다 보면 마차가 달리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간 느낌을 받는다. 고타드 고개의 옛 도로는 사실 새 도로가 난 이후로 내비게이션에서는 추천해 주지 않는 길이지만, 200 년이 넘게 교통을 책임졌던 도로인 만큼, 돌길의 독특한 텍스처와 구불거리는 도로로 인해, 오르는 사람에게는 하늘길이 열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헤어핀은 꼭 경험해 볼 만하다. 자전거, 모터사이클의 통행 비중도 높은 편이다. 발 트레몰라옆 고타드 고개 호수에서 많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고타드(Gotthard)의 척박한 고원을 지나 서쪽을 향해 달리면서 푸어카 고개로 접어든다. 녹색으로 우거진 우어저렌(Urseren) 계곡을 지나 레알프(Realp)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후로 급격하게 굽어진 코스가 나타나 운전자들을 짜릿하면서도 긴장케 만든다. 푸어카로 오르는 여정에 보이는 파노라마는 영화의 한 장면같이 멋진데, 실제로 은막의 전설인 007 시리즈 중 골드핑거(Goldfinger)에서 적들이 총알을 쏟아부을 때 제임스 본드(James Bond)가 이 굽이진 고갯길을 달리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랜드 투어(Grand Tour)는 푸어카 고개에서도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2,429m 를 지난다.

푸르카 고개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멈춰서 구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구간은 벨베데레 호텔(Hotel Belvedere)이 있는 벨베데레 론네글레처(Belvédère Rhonegletscher)다. 가장 많은 여행자가 멈춰 서는 곳이기도 하다. 성인 1 인당 CHF 9 를 내면 산 너머의 빙하와 동굴 체험도 가능하다. 이후 구간은 운전자에게 스릴이 넘치는 구간인데, 도로 폭이 좁고 사이드의 울타리가 표시 석 정도로만 박혀있기 때문에 그 너머로 아찔한 경사와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다. 스위스의 과감하면서도 배려 넘치는 운전 문화로 인해 의외로 교통은 원활한 편이다.

글레취(Gletsch)에서는 루체른(Luzern) 방향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고갯길, 그림젤(Grimsel) 고개로 빠질 수 있다. 암벽이 많고 원시적 매력이 살아있는 풍경은 도로를 따라 산을 오르며 점차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토텐 호수(Totensee)를 지나자마자 꺾이는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젤 패스의 헤어핀을 내려다볼 수 있다. 차 1~2 대가 잠깐 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멀리 보이는 풍광과 바로 옆을 지나는 자전거, 모터사이클과 클래식 카를 보는 재미도 있다. 그림젤 고개 중간에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매력을 더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아레 계곡(Aareschlucht), 그림젤 호스피츠(Grimsel Hospiz)의 테라스, 겔머반(Gelmerbahn) 퓨니큘러와 겔머 호수를 추천한다. 자연의 위대함과 풍광, 스릴을 모두 챙길 수 있다.

***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블론디의 '하트 오브 글래스(Heart of Glass)', 티나 터너의 '골든아이(Goldeneye)', 건즈 앤 로지즈의 '패러다이스 시티(Paradise City)', 잭 존슨의 '업사이드 다운(Unside Down)'이 굽이친다.

3. 레이디 가가와 데이빗 보위와 와인 한 잔 하고픈 달라이 라마 포도밭 드라이브

아르동(Ardon) – 사이옹(Saillon)
시야가 닿지 않는 저 먼 곳까지 포도밭이 펼쳐진 아르동(Ardon)은 와인의 세계로 향한 문이다. 바위가 많은 경사면에서 자라나고 있는 포도나무는 우수한 품질의 와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로컬 셀러, 농장, 소박한 선술집 등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와인들은 결코 실망하게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발레 와인 루트(Valais Wine Route)는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 와인으로 유명하다. 루트의 하이라이트는 사이옹(Saillon)으로, 2013 년 스위스 프랑스어 사용권 지역 중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힌 바가 있다. 유서 깊은 바야르 타워(Bayart Tower)에서는 저 멀리 펼쳐진 포도밭의 바다를 건너 론(Rhône) 계곡과 웅장한 발레 알프스(Valais Alps)까지 아우르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이 타워는 스위스 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포도밭이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소유인 콜린 아르덩뜨(Colline Ardente) 언덕 위에 서 있다.

***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
포도밭의 달콤한 향기를 따라 알로에 블라크의 '더 맨(The Man)', 쉐릴 크로의 '이프 잇 메익스 유 해피(If It Makes You Happy), 레이디 가가의 '샬로우(Shallow)', 데이빗 보위의 '스타밴(Starman)', 린킨파크의 '인 디 엔드(In the End)'가 넘실댄다.

4. 콜드 플레이와 프린스와 함께 감미로운 레만호의 포도밭을 따라가는 코스

코르소(Corseaux) – 뤼트리(Lutry)
레만(Léman) 호숫가에 펼쳐진 포도밭, 라보(Lavaux) 지구를 따라가는 드라이브 코스로, 동화 속에 나오는 길을 따라가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아름답다. 포도밭 마을, 쉐브레(Chexbres)를 향해 오르고 나면, 루뜨 드 라 코르니슈(Route de la Corniche)가 나오는데, 포도밭 사이를 뚫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좁은 길이지만, 이 화려한 풍경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맛집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언덕에 자리한 포도밭과 돌로 만들어진 담장, 와인 생산자들의 마을을 둘러보다 때때로 반대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바다 같은 레만호 너머로 알프스가 펼쳐진다. 세련된 와인을 생산하는 작은 보석 같은 마을, 에뻬쓰(Epesses)에서 리엑스(Riex)까지 이어지는 루트 드 라 코르니쉬(Route de la Corniche)에서 특히 정겨운 포도밭 길이 나타난다. 루트 드 그랑보(Route de Grandvaux)에서 뤼트리(Lutry)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는 호숫가를 따라가며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
호수와 포도밭, 알프스의 풍경이 만나는 절경을 따라 에드 시런의 '쉐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 펫샵보이즈의 '잇츠 어 신(It's a Sin), 콜드 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프린스의 '퍼플 레인(Purple Rain)'이 절묘하게 울려 퍼진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5. 더 비치 보이스와 U2 가 이끄는 루체른 호수 최고의 뷰
벡기스(Weggis) – 비츠나우(Vitznau) – 오토 페리(Auto Ferri) –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스위스 그랜드 투어의 마지막 구간의 일부로, 베른(Bern)에서 취리히로 돌아가는 구간에 속해 있다.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에 있는 스위스 최고의 호숫가 드라이브 코스다. 도보여행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벡기스, 비츠나우를 거쳐 리기(Rigi) 산을 향한다면, 자동차 여행에서는 호숫길을 따라 벡기스, 비츠나우 마을을 거쳐 오토 페리를 타보는 것을 권한다. 왼쪽으로는 리기산을, 오른쪽으로는 필라투스와 루체른 호수, 알프스의 파노라마가 등장한다. 아기자기한 스위스 마을의 골목을 교차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벡기스나 비츠나우에서 멈춰 잠시 유람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다.

게르사우(Gersau)에서 차를 실을 수 있는 오토 페리를 타면 호수 반대편에 있는 벡켄리드(Beckenried)로 갈 수 있는데, 시간도 단축도 되고,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를 가로지르는 풍경도 만끽할 수 있다. 오토 페리의 2 층에서 그랜드 투어 표지판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벡켄리드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결혼식을 치렀던 리조트 산, 뷔르겐슈톡(Bürgenstock)이 무척 가깝다. 뷔르겐슈톡에서는 5 성급 리조트에서 호수의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미식 정찬을 즐기거나 간단히 음료를 즐기기에도 좋다. 뷔르겐슈톡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야외 엘리베이터, 함메취반트(Hammetschwand) 리프트를 타 보는 것도 재밌다.

***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
드넓은 호수를 따라 더 비치 보이스의 '굿 바이브레이션스(Good Vibrations)', 화이트스네이크의 '히어 아이 고 어게인(Here I Go Again)', U2 의 '웨어 더 스트릿츠 해브 노 네임(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 등 풍경과 분위기에 짜릿하게 들어맞는 노래가 펼쳐진다.

11 개 구간의 플레이 리스트는 다음에서 스트리밍 받을 수 있다.
https://open.spotify.com/user/wt1fwbdwmqjcghg74wr4c4t8t?si=trDeljBxSSaWCMVdE8I9Dg

빠질 수 없는 팁!
그랜드 투어 스낵 박스(Grand Tour Snack Box)
낭만 여행자라면 그랜드 투어 스낵 박스(Grand Tour Snack Box)를 챙겨 보아도 좋다. 게다가 언택트 여정에 피크닉은 최상의 식사일 수 있다. 스위스 전역에 펼쳐진 그랜드 투어 루트 중 약 30 개의 공식 판매처에서 2 인용 피크닉 박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명물 먹거리를 담아 두었다. 2 개의 음료와 5 개의 수제 스낵이 빨간 박스 안에 정성스레 담겨 있다. 에멘탈 치즈, 너트 케이크, 보리 빵 등 유명 베이커리, 치즈 공방, 소시지 장인, 농가 등에서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스낵을 맛볼 수 있다. 2 인용 스낵 박스는 CHF 45 다. 판매처 리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Switzerland.com/snackbox

자료 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